

## 이창원 개인전 “Other Selves” 서문

©대안공간 루프

September 2012

이창원의 Parallel World(2012)는 서로가 타자인 두 세계의 인과성을 보여 준다. 작품을 보러 암실에 들어간 관객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벽에 비친 빛의 실루엣이다. 동화책에 나올 법한 빛의 형상들은, 먼 옛날의 동굴 벽화나 마티스의 춤을 연상시키는 신비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실루엣들은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오려서 만든 것이다. 사진들은 재난, 전쟁, 정치적 분쟁 등 어두운 현실의 장면들을 담는다. 작가는 그런 사진의 일부를 잘라 낸 자리에 거울을 붙이고 빛을 반사시켜 벽 위의 형상들을 연출한다. 그럴 때, Parallel World의 두 축인 벽의 이미지와 사진 속 장면은 서로 평행이다. 둘은 물리적으로 빛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 의미는 대립하며, 따라서 그 사이에는 서로를 가리키는 연결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

이번 개인전 <Other Selves>는 비교적 최근 작업인 Parallel World를 중심으로 이창원의 미술을 재조명한다. 작가는 1972년 인천 태생이며, 2000년에 독일의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로 유학 간 뒤 그곳에서 10여 년간 작가로서 활동했다. 그가 해 온 작업들을 보면 일관된 맥락이 있다. 비단 Parallel World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작업들 역시 합칠 수도 분리할 수도 없는 역설적 이원론을 다룬다. 예컨대 그가 2000년대 초부터 제시한 작업 형태의 하나는 ‘블라인드’ 처럼 보이는 시각 이미지다. 다시 말해, 직사각 프레임에 얇은 판을 수평으로 촘촘히 붙이고, 각각의 판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커피 가루 등을 치밀하게 올리는 형식이다. 그러면 이런 판들은 음영 효과로 인해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이미지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보여 주는 형식과 보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있다.<sup>1</sup>

2차원 평면(전체 그림)인 동시에 3차원 입체(얇은 판들)라는 점에서, 저 작업은 둘 중 어디에 본질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은 단지 대립하는 게 아니라 긴밀히 이어져 있기도 하다. 2차원의 음영은 얇은 판들이 축적돼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판 위에 찻잎이나 커피 가루를 쌓아 혹 불면 날아갈 듯 덧없는 형상은, 그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 전체 이미지에 의존한다. 이러한 역학 관계가 미술 표현상의 역설을 다룬다면, 이후의 Parallel World와 같은 작업은 관객에게 다가오는 의미의 간극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

어두운 방에서 벽에 맺힌 실루엣들을 보면, 문득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떠오른다. 그것은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동굴 벽에 비친 바깥의 그림자가 세계의 전부라고 믿는다는 알레고리다. 플라톤은 이를 통해 진짜 현실을 외면하는 자들을 비판했다. 밝은 윤곽만 남아 촘촘듯 흩어진 Parallel World의 형상들은 일견 현실에서 도피한 환영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창원의 작업은 플라톤의 동굴과 다른 점이 있다. 동굴 벽의 그림자는, 플라톤에 의하면 찬란한 진리의 태양이 가려진 어슴푸레한 이미

<sup>1</sup> 강수미, "빛과 그림자 이미지의 재/탄생: '평행 세계'를 구축하는 이창원의 미술", 작가의 홈페이지에서 참조: <http://www.changwonlee.com/text/parallel%20world%202011.pdf>

지에 불과하다. 반면 작가가 만든 암실 벽의 이미지는 사진의 잘린 구멍에 반사된 LED 조명이라 매우 밝다. 그리고 그 밝은 형상들의 원래 출처인 사진 속 장면들이 특별히 더 진실한 것도 아니다.

수잔 손탁이 "플라톤의 동굴 속에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진은 종종 경험을 밀어내고 현실을 피상적 이미지의 파편들로 만든다. 특히 이창원 작업의 주요 소재인 저널리즘 사진들은 폭력과 부조리, 비극을 무감각한 일상으로 만들곤 한다. 그 사진들의 의미는 오히려 작가가 만든 '평행 세계'에서 깊이 드러난다. 빛의 환영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차릴 때, 관객은 불편한 사회적 현실에서 꿈 같은 환상을 꺼내도 좋을지 갈등하게 된다. 사진 속 이미지의 심각성을 다시 묻게 되는 것이다. Parallel World의 의미는 동굴 밖의 진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이미지 사이를 오가면서 단단해진다. 헤겔 이후의 서양 철학에선 타자가 단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해 왔다. 사진 속 현실과 벽 위의 환상이라는 두 세계는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서로의 존재로 인해 무감각한 시선을 넘어 자기 고유한 무게를 얻는다. 서로가 단순한 타자에 그치지 않는, 또 다른 자신인 것이다. ©